

대량학살의 전략적 이해

- 벤자민 발렌티노(Benjamin A. Valentino)의 이론을 중심으로 -

장 원 석*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II. 전통적 연구의 논리와 한계
- III. 대량학살과 지도자의 역할
- IV. 가해자와 대중의 심리 분석
- V. 대량학살의 예방과 개입

I. 문제의 제기

이 글은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정부학 조교수인 벤자민 발렌티노가 2004년에 발표한 저서¹⁾를 분석함으로써 대량학살에 대하여 새롭게 조망한 중요한 가설을 소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혈적인 참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량학살이나 제노사이드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서 학문적인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해 왔다. 지난 세기 후반에 들어 약간의 연구결과가 축적되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사회 집단간의 뿌리 깊은 균열,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국가적 위기의 심리적 효과,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권력집중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발렌티노는 이들 이론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정의과 교수

1) Benjamin A. Valentino, *Final Solutions: Mass Killing and Genocide in the Twentieth Century*(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또한 중대한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즉 이들 구조적 변수들은 유사한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대량학살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량학살에 대한 이해가 광범위한 사회구조적 요인 대신에 소수의 정치지도자나 군사지도자가 취했던 전략적 선택이라는 시각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역사적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도자들의 전략적 목표와 신념이 상황적 압력 및 외부적 사태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대량학살의 유력한 동기를 초래하는지를 고찰한다.

발렌티노가 주장하는 '전략적 관점'에 의한 설명은 기존의 이론들이 고집해 온 '근본원인적 관점'의 그것과 비교할 때 대량학살의 예방과 개입에 있어서 상이한 결론을 보여준다. 그는 집단적 차별의 해소나 민주적 정부의 건설과 같은 근본원인을 거론하는 것은 비현실적일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쓸모없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이들 사회악은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사전 개입할 수도 없고 단기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반면에 전략적 관점은 대량학살의 동기를 만들어내는 많은 조건들을 식별함으로써 대량학살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보다 신뢰할만한 지표들을 제공한다. 발렌티노는 대량학살의 예방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 무력의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우선적인 목표는 가해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은 희생자 집단을 안전하게 도피시키는 작업이 된다.

이 저서에 대한 서평들을 살펴보면, 발렌티노의 전략적인 접근은 대량학살의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대신 그것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시도함으로써 미래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처방은 이상주의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실상 인증적인 적대감과 증오심이 집단학살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홀로코스트의 경우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진정으로 최종적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²⁾

2) Daniel Chirot, "Final Solutions: Mass Killing and Genocide in the 20th Century by Benjami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June 2005); Jessica Priselac, "Final Solutions: Mass Killing and Genocide in the 20th Century," *SAIS Review*, vol. 25, no.1 (Winter/Spring 2005); John Ikenberry G., "Book Review: Final Solutions: Mass Killing

II. 전통적 연구의 논리와 한계

1. 대량학살의 개념 정의

대규모의 비전투원들에 대한 의도적인 학살을 설명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제노사이드'(genocide)이다. 그러나 제노사이드라는 용어의 가장 큰 한계는 그것의 어원과 공식적인 유엔의 정의(定義) 양자 모두에 있어서 의미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것이다. 유대계 출신의 폴란드 변호사인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은 1944년 처음으로 '제노사이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렘킨은 이 용어를 만들기 위해 '인종 또는 종족'이라는 의미의 그리스 단어 genos와 '죽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파생어인 cide를 결합시켰다. 렘킨은 제노사이드를 "집단 자체를 절멸시키려는 목적 속에서, 민족 집단들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를 파괴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의 통합적 계획"으로 정의하였다.³⁾ 렘킨 자신이 기안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1948년의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은 제노사이드의 희생자들을 '민족적, 인종적, 종족적 혹은 종교적' 집단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제노사이드를 "인종이나 민족 집단에 대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절멸"로 정의하고 있다. 제노사이드 협약이 마련된 이후 줄곧, 많은 연구자들이 유엔의 정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제노사이드의 정의에서 정치적, 비인종적 집단들을 명백하게 배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발렌티노는 희생자들의 집단적 정체성에 관계없이 비전투원들에 대한 체계적 학살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제노사이드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대신 '대량학살'(mass killing)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를 통해서 관련현상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그는 대량학살을 '대규모의 비전투원들에 대한 의도적인 학살'이라고 정의한다. 대량학살의 희생자들은

Paul B. Miller, "Final Solutions: Mass Killing and Genocide in the 20th Century," *H-Net Reviews* (August 2005).

3) Raphael Lemkin, *Axis Rule in Occupied Europe: Laws of Occupations, Analysis of Government, Proposals for Redress*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44), p. 79. 발렌티노 책 p.10에서 재인용.

그들이 비전투원이며 죽음이 의도적으로 초래되는 한, 모든 종류의 집단(인종, 정치, 종교 등) 구성원들을 포함한다. 그는 대량학살의 세 가지 개념 요소를 더욱 구체화 시킨다.

첫째, 대량학살은 의도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연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 또는 전시에 행해진 민간인들에 대한 비의도적인 살인과 구별된다. 이러한 정의는 처형, 독가스 주입, 폭격 등과 같은 '직접적인' 살해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아, 유기, 재산 박탈, 파괴, 생필품의 봉쇄에 따른 죽음 등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강제 이주나 강제 노동의 시기에 발생한 일련의 희생을 포함한다(Valentino 2004, 10). 죽음의 의도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것은 가해자가 품고 있는 특수한 목적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대량학살은 처형을 목적으로 특별히 고안된 정책의 결과일 필요만은 없다. 죽음이 민간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강요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기획된 정책에서 기인한다면, 그리고 이들 정책으로 인해 가해자들에게 광범위한 죽음이 초래되리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도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공습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은 공격자들이 생존자들에게 항복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격이 감행될 경우 대량학살의 희생자들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격자들이 인근의 군대나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된다면, 그것은 비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강제 행군, 강제 노동, 혹은 강제 추방의 결과에 따른 죽음 역시 가해자들이 이들 정책의 이행이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면 - 가해자들이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학살 그 자체를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둘째,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대량학살 정의의 두 번째 측면은 '대규모'의 의미이다. 재노사이드에 대한 대부분의 학문적 정의와는 달리, 대량학살의 개념은 가해자들이 전체 집단 혹은 집단의 일정 부분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경우 대규모의 수는 5년을 전후한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된다(Valentino 2004, 10-11). 이러한 구체적인 수적 기준은 어느 정도 자의적이지만, 이처럼 비교적 높은 기준을 설정한 것은 대규모의 폭력 사태가 식재로 발생했으며 학살은 의도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말

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민간인 사망자에 관한 활용 가능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빈약한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높은 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발렌티노는 5만 명 이상이 학살된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또한 2만 명이나 3만 명이 사망한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수적 기준에 의존하는 정의는 비교적 큰 규모의 희생자 집단들을 강조하는 편견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소규모 집단들에게 가해진 위협이 연구할 가치가 없다거나 이들 집단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셋째, 보다 의미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는 대량학살 정의의 세 번째 개념 요소는 '비전투원'이라는 용어이다. 대량학살과 여타 형태의 전쟁을 구별해주는 것은 비전투원들을 대상으로 취해진 폭력인가 여부이며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을 크게 자극한다. 비전투원은 조직화된 군사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며 적군이나 적의 재산에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전쟁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비무장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식량이나 기타 보급품을 제공하거나 무장세력을 옹호하는 비폭력적 정치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비전투원이 전투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Valentino 2004, 13-14). 이런 활동들은 전투원들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가담하는 개인들은 - 그들이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 학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대량학살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 방식

제노사이드라는 용어가 50년 이상 사용되어져 왔지만, 제노사이드나 대량학살에 관한 공식적인 이론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징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에 대해서는 많은 글들이 쓰여졌지만,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서 대량학살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흔치 않다. 그러나 비교적 소수의 이론적 작업이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발렌티노는 제노사이드와 대량학살에 관한 3대 연구 계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계보는 제노사이드와 대량학살의 주요 원인이나 전제조건으로서

집단들간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사회적 균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둘째 계보는 전쟁, 혁명, 기타 국가적 위기들이 대량학살을 촉발시킨다고 주장한다. 셋째 계보는 이러한 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정부형태와 권력집중의 문제를 강조한다. 발렌티노는 이들 각각의 접근방식이 대량학살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할만한 설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사회적 균열과 대량학살

제노사이드의 핵심 원인이나 전제조건으로 언급된 가장 일반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동일한 사회 내에 살고 있는 이질적 집단간의 심각한 분열현상이다. 발렌티노는 사회적 균열의 충격에 초점을 맞추는 제노사이드나 대량학살의 설명을 총칭하여 다원적 사회이론(plural society theory)이라고 부른다 (Valentino 2004, 16). 몇몇 학자들이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다원적 사회이론은 제노사이드 비교연구의 선구자인 레오 쿠퍼(Leo Kuper)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학자들은 심각한 인종적·문화적·종교적·계급적 분열, 정도가 심한 공개적 혹은 사실적 차별, 정치적 혹은 경제적 배제, 집단들간의 불신이나 증오 등 다양하게 사회적 균열을 정의해왔다. 이와 구별되지만 또한 관련이 있는 이론군(群)은 특히 집단들 관계의 비인간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사회적 균열은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집단간의 갈등 가능성을 고조시키며, 억압받는 집단들에 의한 반란을 촉발하고, 적들의 신분 확인을 용이케 하거나 혹은 도덕적 책임의 규범을 침식함으로써 제노사이드를 유발할 수 있다.

2) 국가적 위기와 대량학살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를 설명하는 두 번째 이론은 전쟁, 혁명, 심각한 경제공황, 기타 파국적인 사건들 - 국가적 위기 - 이 대량학살의 발생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연구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대량학살 사례들은 일종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뒤이어 나타나거나 혹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다. 국가적 위기와 대량학살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그룹은 희생양 이론(scapegoat theory)이라고 부르는

설명으로서, 국가적 위기가 초래한 사회적-심리적 영향이 제노사이드를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며, 둘째 그룹은 정치적 기회 이론(political opportunity theory)이라 불려지는데, 국가적 위기로 인해 생겨난 대량학살의 기회와 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 희생양 이론

희생양 이론은 대량학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정교한 사회적-심리적 이론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접근은 다원적 사회 이론에 의해서 조명된 일부 요인과 설명을 포함한 사회학적 연구의 특성을 개인심리학 및 사회심리학의 통찰력과 결합시킨다. 희생양 이론의 지지자들은 심각한 위기로 파괴된 사회가 고통의 책임을 소수 집단들이나 힘없는 다수 집단에게 전가하려 할 때 대량학살 사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Valentino 2004, 22). 이들 이론에 따르면 극심한 생활 조건으로 고통을 받는 개인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좌절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확인하려는 강력한 심리적 욕구를 갖는다. 희생양 이론의 지지자들은 개인들이 희생양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투영시킴으로써 삶에 대한 죄의식과 개인적인 책임감에서 벗어나려 하는 심리가 제노사이드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② 정치적 기회이론

국가적 위기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실명의 계보는 그것이 정치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제노사이드적 이데올로기를 이행하려고 모색하는 혁명 엘리트들에게 유인, 기회, 구실을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Valentino 2004, 25). 전쟁, 혁명, 심각한 경제적 공황은 비교적 소수의 집단에게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기제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독일의 군사적 패배와 경제적 붕괴는 홀로코스트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사태가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유대인을 비난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이 독일의 신생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심각할 정도로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들 위기는 정치적 파당의 등장에 기여하였고, 민주적 절차를 불안정하게 하였으며, 공산주의의 명령을 불리일으켰다. 또한 일

부 투표자들에게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포함해 독일의 경제 문제에 대한 급진적 해결을 고려하도록 자극하였으며, 그 결과 나치와 같은 급진주의자들이 독일의 국가권력을 쉽게 장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3) 비민주적 정부형태와 대량학살

제노사이드와 대량학살 연구의 세 번째이며 최종적인 계보는 그것이 발생하는 사회의 정부형태 속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한다. 루돌프 럼멜(Rudolph Rummel)은 이러한 설명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다. 럼멜이 사용하는 '권력 원리'(power principle)라는 용어에 따르면, "정부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질수록, 엘리트들의 번덕과 욕망에 따라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시민과 외국인들을 학살할 가능성이 더 많게 된다. 정부는 권력의 제약을 더 많이 받을수록, 타인에 대해서 덜 공격적이 된다."⁴⁾ 럼멜과 기타 연구자들은 민주적 정부형태들이 다른 정부체제들 - 특히 전체주의 정권과 공산주의 정권 - 에 비해 보다 낮은 수준의 대량학살 및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왔다.

3. 발렌티노의 비판

발렌티노는 이상의 세 가지 접근방식에 대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비판을 가한다.

- 1) 대량학살 가해자들이 종종 희생자들을 자신들과 다른 존재, 자신보다 열등하거나 심지어 덜 인간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 인간이 바로 자신과 같은 다른 인간을 대상으로 무방비 상태의 집단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에 가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의 희생자들이 살해되기 전에 종종 경제적, 정치적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기존의 사회적 균열이나 희생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대량학살의 주요하고 독립

4) Rudolph Rummel, *Death by Government*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1994), pp.1-2. 발렌티노 책 27페이지 재인용.

적인 원인이거나 결정적인 전제조건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폭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기존의 사회적 균열이 대량학살의 충분조건이나 보편적인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가장 심각한 사회적 균열도 신뢰할만한 대량학살의 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 집단들 간의 균열이 대량학살의 인과론적 과정에서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열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노사이드나 대량학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원적 사회이론의 지지자들은 공산주의 대량학살이 홀로코스트와 같이 인종적으로 촉발된 제노사이드들과는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론을 소련, 중국, 캄보디아와 같은 사례에 적용하기를 회피해왔다. 홀로코스트와 공포정치는 확실히 근본원인이 다르다. 그러나 공산주의 대량학살의 역사가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수준의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균열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가 심지어 인종적 대량학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회적 균열의 인과적 역할을 단순히 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발렌티노는 제노사이드적 폭력에 관련된 인종 집단들 상호간의 사전적 분열의 심각성이 종종 과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단 폭력적 충돌이 발생한 후에는 집단간 균열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쉽다. 광범위한 폭력은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고 집단 상호간의 상대적 조화와 협력의 오랜 역사를 외면케 하며 집단 관계의 부정적 측면들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발렌티노는 인종 집단간의 심각한 균열은 독립적인 원인이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대규모 폭력의 효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한다. 비교적 관용적인 사회의 경우에도, 강력한 집단들은 자신들의 적들을 비인간화시키고, 현존하는 사회적 분열을 강화시키며, 심지어 새로운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어 왔다. 심각한 차별, 도덕적 배제, 비인간적 태도들은 종종 선행하는 사회적 특성이 아니라 희생자 집단에 대한 폭력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의식적 전략의 결과이다(Valentino 2004, 19).

예를 들면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이슬람교도들 사이에 벌어진 공공연한 차별은 1991년의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특히 심각하거나 만연되었던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볼 때, 인종간의 관계는 전적으로 조화로웠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여타국가의 그것보다 크게 악화된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1989~1990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집단들 간에 높은 수준의 인종적 관용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1991년 11월에조차도 70~90%의 주민들은 유고슬라비아로부터의 독립이나 인종적으로 분리된 공화국의 건설에 반대하였다. 특히 보스니아에서는 수많은 전문가 종교적 의미를 띠었지만, 전쟁 이전에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간주하는 보스니아인들은 25%(자신을 종교인으로 간주하는 미국인들은 70%를 넘는다)도 안되었다. 전쟁 이전 10여 년 동안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 가운데 29%가 크로아티아인 배우자와 결혼하였다(1993년 미국에서 백인 배우자와 결혼 흑인은 12.1%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전쟁 이전의 시기에 인종집단 상호간 부분적으로 적개심과 편견이 존재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인종 집단간의 불신을 자극하고 주민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선동적인 캠페인을 시작할 때까지 이러한 감정이 광범위한 폭력을 촉발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정반대로, 다원적 사회이론 지지자들이 대체적으로 인정하듯이, 심각한 사회적 균열에 의해서 찢겨진 사회도 대량학살을 경험함 없이 오랜 기간 존재할 수 있다. 사실 그와 같은 사회는 매우 흔해 보인다. 예를 들면 많은 역사학자들은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반유대인적인 태도와 유대계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이 독일에서보다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 더 심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짐 크로우(Jim Crow) 시대에 미국 남부 주에 살았던 흑인들 역시 사회의 주요 집단들로부터 공공연한 차별, 강력한 경제적·정치적 배제, 비인간적인 증오와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노사이드를 피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점령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⁵⁾, 인종차별주의

5) 발렌티노는 전략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팔레스타인 문제가 대량학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1948년 이후 양자 사이에서 대량학살 사태가 발생하지

시대를 살았던 남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수십 년 동안 극단적인 수준의 증오와 차별로 고통을 겪었지만 제노사이드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은 대단히 심각한 기존의 사회적 균열이 대량학살이나 심지어 협의의 제노사이드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결론이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의 인과론적 과정에 작용하는 이들 요인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독일 반유대주의의 오랜 역사를 언급함 없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렌티노에 의하면 그와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독일 같은 국가들과 소수 집단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절멸 작전을 전개하지 않았던 여타 사회와의 차이를 제대로 말해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 2) 국가적 위기는 대량학살을 필연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초래하지 않는다. 국가적 위기가 비교적 일반적인 현상인 반면, 대량학살은 보기 드문 사태이다. 따라서 대부분 희생양 이론의 지지자들은 가해자들 사회와 문화의 특정 측면이 국가나 사회로 하여금 희생양을 만들도록 몰아가며 궁극적으로 제노사이드나 대량학살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지적되어져 왔는데, 그것들은 권위에 대한 복종의 전통, 공격적인 문화의 기질, 사회 및 정부 제도의 특정 형태 등이 포함한다. 그러나 희생양 이론의 대다수 지지자들은 대단히 심각한 기존의 사회적 균열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대량학살에 대한 호소력을 재고시킨다는 전제를 수용한다.

역사의 기록은 대량학살이 국가적 위기에 뒤이어 일어난다는 희생양

않았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무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자유롭게 이웃 국가로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자살폭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보여준 자제력이다.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민간인 학살을 시도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즉 그들은 대량학살이 초래할 비생산적이며 파멸적인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Benjamin A. Valentino, "Final Solutions, Future Puzzles," *Security Studies* 13, no.3 (Spring 2004), pp. 216-218.

이론의 가설을 대체적으로 확인하지만, 또 다른 증거는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론적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다원적 사회이론과 관련해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사회집단들 상호간의 심각한 균열은 대량학살의 발생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 아니다. 제노사이드와 대량학살은 일반적으로 차별이나 폭력적 갈등의 역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유사한 사회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희생양 이론에 타격을 준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선행하는 사회적 균열이 국가적 위기에 대해 대량학살로 대응하는 소수의 사회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회를 구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역사적 증거들이 희생양 이론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서술되는 기본적인 심리적 메카니즘의 적실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희생양 이론은 대량학살이 국가적 위기로 야기된 심리적 좌절과 두려움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대량학살이 지배적인 사회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즉 이들 집단의 구성원들이 학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홀로코스트조차도 희생양 이론을 상당히 당혹케 하는 증거가 된다. 희생양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를 희생양 이론의 패러다임적 사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부의 연구자들 -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다니엘 골드하겐(Daniel Goldhagen)⁶⁾이다 - 은 대부분 독일인들이 유대인의 절멸을 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중요한 학문적 견해들은 이러한 해석에 단호히 반대한다. 나치 시대나 그 이전 시기의 독일 국민 여론에 대한 조사연구는 제노사이드가 가해자 사회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폭넓게 인기가 있어야 한다는 희생양 이론의 함축적 의미를 반박한다. 홀로코스트 발생 이전의 독일 사회에 반유대주의가 만연하였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부정하는 학자들은 없지만, 대다수 독일 국민들은 유대인의 절멸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나가지는 않았다(Valentino 2004, 24).

6) Daniel Jonah Goldhagen, *Hitler's Willing Executioners: Ordinary Germans and the Holocaust* (New York: Knopf, 1996).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유대인 대량학살을 지지하였다는 주장은 독일 국민과 나치 정부 자신의 행동을 보더라도 모순적이다. 유대인들에 대한 자발적인 폭력은 나치가 정권을 잡은 뒤에도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나치 지도자들은 희생양 이론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독일 국민들의 충동에 대응하여 행동한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정권을 잡은 순간부터 지속적인 선전을 통해 반유대주의 정서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반유대주의 슬로건과 이미지의 꾸준한 흐름조차도 대다수의 독일인들에게, 비록 유대인들을 보호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약화시켰을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이 죽어야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 국가적 위기는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희생양들에 대한 폭력적인 복수를 호색하도록 자극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발렌티노는 정치적 기회이론 역시 국가적 위기와 대량학살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제노사이드와 대량학살을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을 상대적으로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적 위기는 보다 안정적인 사회와 비교할 때 대량학살의 개연성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국가적 위기가 그와 같은 폭력을 촉발시킬 절대적 가능성은 지극히 적은 법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절대 다수의 국가적 위기들은 - 그것이 전쟁, 혁명, 혹은 심각한 경제 공황이든지 간에 - 대량학살에 이르지 않는다(Valentino 2004, 26). 대부분의 정치적 기회이론 지지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들로 하여금 국가적 위기로 나타난 제노사이드적 기회들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이들 위기를 보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만드는 특정 조건들과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 3) 민주주의 정부형태가 다른 정부형태에 비해 자국의 시민들에 대한 대량학살에 덜 가담한다는 사실은 대량학살에 관한 이론적 문헌에서 가장 신중하게 증명된 발견 가운데 하나이다. 발렌티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점이 이러한 통찰력의 유용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럽델이 인정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시민들을 살해한 적이 거의 없지만, 그들은 외국과의 전쟁이나 해외 식민지에서 대량 학살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은 1899년-1902년의 필리핀 점령 기간에 2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으며 그들 중 다수를 의도적으로 살해하였다. 군과 제휴한 민주 프랑스는 알제리 전쟁 기간에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했으며, 베트남에서는 25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자 모두 의도적 살인이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또한 시민으로 규정하지 않은 국내 집단들에 대해서도 대량학살을 자행해왔다. 미국이 북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일련의 무자비한 전쟁은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전쟁은 최종적으로 원주민들을 거의 절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럽델의 권력의 원리가 보여주는 두 번째 한계이며 보다 중요한 한계는 그것이 언제 대량학살이 발생할 것인지를 거의 예측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럽델이 인정하듯이 권력은 대량학살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여타 형태의 정부들보다 학살에 덜 가담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장 비민주적 정권들조차도 대부분의 집권 시기에 대량학살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Valentino 2004, 28). 대량학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론은 주체가 민주적인 집단이든 비민주적인 집단이든 자신들의 반대자들과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폭력을 동원하게 되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III. 대량학살과 지도자의 역할

대량학살은 고도의 비민주적 정부의 출현이나 심각한 사회적 위기의 발생으로 적절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들 요인들이 대량학살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절대 다수의 비민주적 정부와 사회적 위기들은 민간인들에 대한 대규모 폭력과 관련이 없다. 이것은 여타의 중요한 원인들이 대량학살의 과정에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발렌티노는 대량학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혹은 정치적 요인 대신에 고위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들의 특정한 목적이나 전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Valentino 2004, 2). 제노사이드에 대한 과거의 이론적 연구는 소수 엘리트들의 이익과 사상이 사회의 나머지 부분의 폭력 참여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리더십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는 사회 일반이 대량학살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생각되어지는 것보다 더 약하다고 주장한다. 이웃이 이웃에 등을 돌리는 대량학살은 좀처럼 대중적인 사업이 되기 힘들다. 정반대로, 대량학살의 추진력은 대개 비교적 소수의 강력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군사 지도자들로부터 비롯된다. 때로는 개별적 지도자들이 학살의 과정을 자극하거나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스탈린 없는 공포정치, 히틀러 없는 홀로코스트, 마오쩌둥 없는 문화대혁명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다. 르완다의 경우 광적인 소수의 후투족 지도자 집단이 학살의 추진체가 되었으며 한 평가에 따르면, 고위 관리 24명이 제노사이드를 기획하였다.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에 책임이 있는 청년 터키당 정권의 지도자였던 엔베르 파샤(Enver Pasha)는 정권 장악과정에 소규모 집단이 강력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였고, 이러한 집단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제노사이드를 일으키도록 결정하게 된 한 이유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 대사 헨리 모겐소(Henry Morgenthau)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Valentino 2004, 63): “귀하는 우리[청년 터키당]가 터키에서 이 혁명을 시작했을 때 200여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우리는 아르메니아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혁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0여명의 터키당원이 정부를 전복할 수 있다면, 수백 명의 총명하고 교육받은 아르메니아인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분산시키는 계획을 의도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세기 대량학살 현상에 대한 폭넓은 고찰은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도자들은 대량학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들을 충원하고 일반 대중의 순종이나 수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대량학살의 수행은 사회 다수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폭력 자체는 군사조직이나 준군사조직의 구성원과 같은 비교적 소집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 보통이다.

발렌티노가 제안하는 '전략적 관점'에 의하면 대량학살은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시대에 내지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적 정책으로 정화하게 파악될 수 있다(Valentino 2004, 3).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이들 지도자들은 좀처럼 대량학살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희생자 집단에 대한 폭력은 그 자체 전체 주민을 물리적으로 절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의 목적은 종종 희생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생활양식에 복종하고, 집과 재산을 포기하며, 정치적 혹은 군사적 반대 집단들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중지하도록 강요하는데 있다. 일부 가해자들은 - 특히 나치는 - 희생 대상을 완전히 절멸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나치의 절멸 정책은 덜 폭력적인 억압의 형태나 희생자 집단에 대한 제한된 양보 등 지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타의 선택이 비효과적이거나 비실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에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해자들은 대량학살을 두 가지 측면에서 '최종적 해결'(final solution)로 간주한다(Valentino 2004, 3). 대량학살은 항구적이라는 의미에서 최종적인 해결책이 된다. 그것은 희생자들로 인해서 야기되었다고 인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의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한다. 그러나 대량학살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에 있어서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또한 최종적이다. 그것은 대개 지도자들이 재래식 군사 전략과 정치 전략을 사용하여 희생자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가해자들은 일부 단편적인 인간애나 동정심의 발로 때문에 대안을 먼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수준의 폭력에 즉각적으로 의지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더 그럴듯한 이유는, 대량학살이 상당한 위협 - 희생자들의 격렬한 저항, 자국 국민과 외국의 소외, 제3자의 개입 초래 - 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덜 폭력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심각한 이해관계가 달려있다고 인식하며, 덜 폭력적인 대안들이 봉쇄되었거나 혹은 실행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대량학살의 동기는 배가된다.

대량학살의 전략적 이해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항상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량학살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

가 있다. 인간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 인식과 신념의 토대 위에서 행동한다. 실제로 대량학살 정책의 구상과 이행에 있어서 소규모 집단과 개인이 수행하는 강력한 역할은 그와 같은 폭력을 촉발시키는데 잘못된 인식의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대량학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가해자들이 현실과 무관하게 대량학살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할 때 그것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많은 사례를 보면, 대량학살의 희생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위협은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상상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가령 유럽의 유대인들은 1930년대에 독일에 대해서 이렇다할 위협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실재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독일 지도자들은 점점 상반된 인식을 강화시켰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종종 과신하였다. 대량학살은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것을 선행한 사람들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매우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 대규모 폭력의 행사는 최소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고, 희생자 집단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희생자들을 지지하는 제3자의 개입을 초래하고,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불신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종종 초래한다(Valentino 2004, 67). 이 글에서 소개된 세 개의 주요 시나리오 역시 중국에 가서는 가해자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 소련, 중국, 캄보디아에서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농민들에게 새롭고 보다 생산적이라고 판단되는 농업의 방식을 강요하기 위해 대량학살에 의존하였다. 폭력은 농민들을 위협하는데 성공하였지만 또한 대기근과 경제의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국 급진적 공산주의 농업의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터키, 나치 독일, 르완다에서는 가해자들이 소수 인종들로부터의 인지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량학살을 이용하였다. 이들 사태의 경우, 무방비상태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임무는 수행중인 전쟁 물자의 전용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그것은 주요한 군사적 패배에 일조하였다. 과테말라의 내전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시기에, 대량학살은 저항 운동에 대한 민간인들의 지지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력은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로 하여금 반군을 지지하도록 만들었으며, 소련의 점령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반대여론을 고조시켰다. 과테말라에서 전술 역시 단기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었지만, 군사정부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여전하였으며, 정권은 결국

반군과 협상을 하고 민주개혁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발렌티노는 지도자들이 특정의 위협에 대처하거나 특정의 이데올로기를 이행하기 위해 대량학살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들이 매우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조건하에서만 대량학살을 매력적인 수단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지도자들에게 대량학살의 강력한 자극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여섯 가지의 구체적인 동기 - 이것들은 대량학살의 여섯 가지 '유형'에 해당된다 - 를 확인한다. 이들 여섯 가지 동기는 두 개의 일반적인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Valentino 2004, 69). 첫째, 지도자들의 계획이 대규모 주민 집단에 대해서 거의 완전한 물질적 권리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때, 이들 집단의 저항을 저지하기 위해 대량학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대량학살만이 이들 집단이나 이들의 영향력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발렌티노는 이러한 유형을 통칭하여 '박탈적'(dispossessive) 대량학살이라고 부른다. 둘째, 지도자들이 재래식 군사 전술을 통해서서는 희망이 없다고 보거나 혹은 너무 많은 비용을 소모한다고 인식하는 군사적 충돌일 경우, 대량학살은 매력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적의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분쇄하려는 지도자들의 노력이 좌절되면, 그들은 적군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강력한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부류의 대량학살을 '위압적'(coercive) 대량학살이라고 부른다. 각 시나리오의 구체적 사례가 <표 1>에 소개되고 있다(Valentino 2004, 70).

이들 중 다음의 3개의 시나리오는 최대의 희생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20세기 대량학살의 절대 다수 사례를 설명해준다.

첫째, 대량학살은 사회의 급진적 공산주의화를 추구하는 정권들에게 매력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공산주의 정권들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폭력적인 대량 학살에 책임이 있어왔다. 급진적 공산주의 정권들은 대량학살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왔는데, 이는 그들의 도입하려는 사회적 변화가 대다수 인민들에게 거의 완전한 물질적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집단농장과 같은 공산주의 정책들은 수천만 명의 인민들로부터 집과 재산을 빼앗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파괴하였다. 사실 폭력과 억압이 동원되지 않았다면, 누구도

<표 1> 대량학살의 유형

동기/유형	시나리오	사 레*
박탈적 대량학살		
공산주의	집단농장화 및 정치적 테러	소련(1917~53) 중국(1950~76) 캄보디아(1975~79) 터키 아르메니아(1915~18)
인종	인종 청소	홀로코스트(1939~45) 르완다(1994)
영토	식민지 팽창	북미 및 남미의 유럽 식민지 독일령 서남 아프리카에서의 헤레로족 제노사이드 (1904~7)
	팽창주의 전쟁	서부 폴란드의 독일 합병(1939~45)
위압적 대량학살		
대개릴라	개릴라전쟁	프랑스로부터의 알제리 독립전쟁(1954~62)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1979~88) 에티오피아 내전(70~80년대) 과테말라 내전(80년대)
테러	테러 폭격	독일과 일본에 대한 연합국 폭격(1940~45)
	기아 봉쇄 / 포위 전쟁	독일에 대한 연합국 해군의 봉쇄(1914~19) 비아프라에 대한 나이지리아 영토 봉쇄(1967~70)
	준국가 / 반란 테러	알제리 독립전쟁 당시 민족해방전선(FLN)의 테러 (1954~62) 남베트남에서의 베트남 테러(1957~75) 모잠비크에서의 민족저항운동(RENAMO) 테러(1976~92)
제국주의	제국주의 정복 및 반란	독일의 서유럽 점령(1940~45) 동아시아의 일본제국(1910~45)

그러한 가혹한 변화에 기꺼이 복종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수백만 명 인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려는 욕심을 갖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대량학살을 피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은 공산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개인들이 반혁명 활동에 가담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 집단들이나 계급에 대한

예방적 진압을 모색하도록 조장하였다. 그것은 또한 공산당 내부의 수많은 희생자들을 제거하는 피의 정치적 숙청을 유도하였다.

둘째, 대규모의 인종 청소 정책을 모색하는 정권들은 또한 대량학살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동기에 직면한다. 인종, 민족, 종교 집단들에 대한 대량학살은 종종 가해자들의 희생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의 결과나 혹은 학살 자체를 위한 학살로서 묘사되어왔다. 그러나 발렌티노는 지도자들이 희생자들로부터의 위협을 사회적 격리나 정치적·군사적 조직 능력의 영구적 파괴를 통해서 저지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인종적 대량학살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가해자들의 인종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신념에 근거할 수 있으며, 또는 희생자 집단들의 실질적인 위협 - 그것은 거의 항상 과장되는 경향이 있지만 - 에 대한 반응일수도 있다. 인종 청소와 대량학살은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지만 종종 동시에 발생한다. 사람들에게 집과 재산의 포기, 오지에서 낯선 생활을 강요하는 일은 상당한 강제를 필요로 한다. 심지어 희생자들이 굴복을 한 이후에도, 대규모 인구가 이동의 절차와 영향은 치명적이다. 인종적 대량학살 사태는 가해자들이 희생자들을 물리적으로 추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때 발생한다. 가해자들은 단순히 대규모의 희생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는 희생자들이 국경선 너머에서 위협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해자들이 일단 희생자 집단들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추방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면, 인종 청소에 대한 충동은 체계적 절멸의 욕망으로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주요한 게릴라 반군들을 격퇴하려는 정권은 대량학살의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많은 연구는 게릴라 반군을 격퇴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행해진 민간인들에 대한 의도적 살육이 20세기 대량학살의 가장 일반적인 추진력이었음을 보여준다. 반군들의 게릴라 전술은 대(對)게릴라 부대로 하여금 민간인들을 목표로 한 작전을 강력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게릴라전은 종종 대량학살에 이르게 된다. 게릴라 부대들은 식량, 은신처, 정보 등과 관련하여 민간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도가 재래식 군대보다 훨씬 더 높다. 민간인들의 지원은 게릴라전에 있어서 주요한 힘의 원천이지만, 그것은 또한 약점일 수도 있다. 게릴라 부대와는 달리 반군들이 의존하는 민간인들은 대체적으로 무방비적이고, 기

동성이 없으며, 자신을 은폐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게릴라들을 섬멸하려는 군사 조직은 게릴라들과 직접 교전하는 것보다 그들에 대한 인민의 지지 기반을 목표로 삼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게릴라들을 고립시켜 민간인의 지원을 차단하려는 이 시도는 종종 대량학살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설명한 시나리오들이 대량학살의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언제나 대량학살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매개변수들이 대량학살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의 동기나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대량학살의 발생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가령 표적이 된 민간인들의 규모, 박탈적 변화가 이행되는 속도, 안전한 지역으로 탈출할 수 있는 희생자 집단의 능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과 조건이 대량학살을 수행하는 가해자들의 동기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Valentino 2004, 71).

IV. 가해자와 대중의 심리 분석

1. 대중의 방관과 수동성

많은 학자들이 사회의 구조와 심리에서 제노사이드와 대량학살의 원인을 찾으려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대량학살의 수행이 사회 다수의 직접적인 개입 또는 적어도 적극적 지지와 공감을 필요로 한다는 암묵적인 가정 때문이다. 그 결과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대량학살에 개입된 사회를 집단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발렌티노는 이러한 가정이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부기력, 수동성, 타인의 고통에 대한 외면 등이며 대량학살과 관련된 간접적 형태의 협력조차도 다수의 대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량학살 사태에서 종종 순용이나 방관이 목격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대량학살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가 일반적으로 높은 희생을 요구하는 반면 그것의 혜택은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개개인들은 이익의 공유를 기대하며 타인들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도록 행동한다. 이러한 부정적 자극은 희생자 집단들에 대한 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국외자들의 조직 능력을 심각할 정도로 방해할 수 있다. 대량학살에 대한 적극적 민내는 박해나 심지어 죽음의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대량학살을 저지함으로써 생겨나는 직접적인 이익은 보호자들보다도 잠재적 희생자들에게 귀속된다. 희생자들은 보통 규모가 작은 고립된 소수 집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량학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종종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발렌티노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말로 이상한 사회는 대량학살이 일어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방관하는 사회가 아니라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사회라고 말한다(Valentino 2004, 39).

2. 적극적 가해자의 심리

대량학살은 대개 소수 집단의 개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들 개인이 그와 같은 야만적인 행위과정에 어떻게 충원이 되고 자극을 받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어느 수준에서는 개별적 가해자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대량학살 가담 동기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렌티노는 두 가지 두드러진 사회적, 심리적 과정이 대부분 대량학살 가해자들의 충원과 동기를 설명해 준다고 말한다. 첫 번째 과정은 대량학살을 책임지게 될 조직 속에 가학적이며 광신적인 개인들을 인위적으로 충원하거나 혹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투신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정은 평범한 인간이 당국이나 동료집단으로부터의 상황적 압력을 받아 극단적 폭력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들 두 개의 과정은 대량학살을 자행하는 개별적 가해자들의 상이한 동기를 보여주지만, 양자는 폭력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대량학살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사람들을 충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1) 선택효과

대량학살에 가담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해답은 매우 혼란스러운 설명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서 행동을 한다. 모든 사회 속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폭력과 학살에서 만족을 느끼는 개인들이 존재한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폭력을 갈구한다. 다른 일부는 보다 기회주의적인 차원에서 폭력에 가담한다. 폭력적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적 연구는 이들 범죄자 가운데 5% 정도가 폭력행위와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즐긴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 일부 폭력행위자들은 사실상 폭력에 중독적인 것과 같은 증세를 보여준다. 참전병사들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결과 역시 2~15% 정도 비율의 군인들이 아무런 주저함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살인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소수의 군인들은 일부 폭력 범죄자들처럼 심지어 살인행위 자체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들 특수한 개인들은 학살을 주저하는 다른 가해자들을 보초로 세우거나 덜 폭력적인 임무를 맡도록 하면서 실질적인 학살에 더 많은 부분을 책임진다. 이러한 종류의 역할 분담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는 1941년 라트비아의 리가(Riga) 교외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독일군과 그들의 지휘 아래 있던 라트비아군은 하루 동안 대략 1만3천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하였다. 이 학살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1700명의 군인과 경찰관들은 희생자들을 처형장으로 내몰고 그 곳을 경비하는 임무를 떠맡았던 반면, 12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총살을 집행하였다(Valentino 2004, 41).

존 뮐러(John Mueller)에 의하면 학살을 위한 자발적 선택과 의도적인 충원은 구 유고슬라비아의 전쟁 당시 살인부대 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민간인들에 대한 대부분의 폭력은 비교적 소수의 깡패집단, 살인청부업자, 그리고 피의 인종 청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모집된 죄수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스니아-세르비아의 준군사조직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집단이었던 '아르칸의 호랑이'(Arkan's Tigers)는 500~1000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주로 범죄자나 깡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에 세르비아 사회의 보다 대표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유고슬라비아 군의 주력부대는 종종 민간인들을 직접적으로 처형하는 임무를 회피하였으며, 그 대신 목표가 된 마을의 주위 경

계책임을 맡고 준군사단체들에게 '더러운 일'을 떠맡기려 하였다(Valentino 2004, 41).

그러나 모든 자발적 가해자들이 단순히 폭력의 짜릿한 희열 때문에 대량 학살에 가담한 정신병자들이거나 범죄자들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가해자들의 또 다른 집단은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념적 신봉자들'(true believers)이라고 묘사될 수 있다. 이들 가해자들은 대량학살이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정당하다고 철저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대량학살에 가담한다. 이념적 신봉자들은 폭력 그 자체로부터 어떠한 쾌락도 느끼지 않는다. 정반대로 그것은 그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인리히 힘러(Heinrich Himmler)조차도 대량 처형을 목격하자 마음이 흔들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이러한 피의 작업에 의해서 배반당했다"고 주장하였다(Valentino 2004, 41). 이러한 인간들은 학살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사명감이나 희생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다.

2) 상황적 압력

위에서 설명한 선택 효과는 대량학살 가해자들 다수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다수의 행동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회는 대량 학살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새디스트들과 이념적 신봉자들을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개인들이 가해자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것은 특히 일반적인 징집 혹은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는 여타의 절차를 통해서 모집된 부대들의 경우에 분명해진다.

브라우닝(Browning)은 자신이 연구했던 부대의 경우 동료들의 압력이 학살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핵심적 요인이었다고 말한다. 개개의 군인들은 학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학살에 가담하였다.

군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 적어도 처음에는 - 자신들이 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혐오했지만, 80~90%가 학살에 가담하였다. 무리를 뛰쳐나와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 밖의 행동이었다. 그들에게는 사격을 가하는 일이 더 쉬웠다. 왜 그런가? 우선, 학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더러운 임무'를 떠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개인들의 의지와 무관

하계 부대는 학살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불유쾌한 집단적 의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거부하는 것과 같았다. 이것은 동료들과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사회적인 행동이었다. 사격을 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립, 배척, 추방의 위협 - 적대적 주민들에게 둘러싸인 해외주둔부대라는 시각에서 볼 때 매우 불안한 전망이었다 - 과 직면해야만 했고 그들은 달리지할 곳이 없었다.⁷⁾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브라우닝이 '보통사람'이라고 불렀던 이들 군인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 대량학살 가해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개의 강력한 증거는 1960년대 초에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이 수행했던 유명한 실험결과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⁸⁾ 밀그램은 학습과 기억의 연구를 명분으로 피실험자들에게 완전히 낯선 인물인 상대방이 어휘목록에서 특정 항목을 기억하지 못할 때마다 일련의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실험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충격이 진짜가 아니며, 희생자는 사실상 실험에 협조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었다. 밀그램은 희생자가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를 때까지 피실험자들의 거의 3분의 2가 충격을 가하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다수의 피실험자들은 희생자가 무의식적 침묵 상태에 빠진 후에도 계속해서 전기충격을 가하였다. 밀그램은 이러한 한계실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밀그램은 어느 특수한 실험의 경우에는 희생자의 손을 강제로 전극 위에 올려놓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들의 30%가 최고 수준의 충격 - "위험: 극심한 충격"이라고 쓰여 있고 "XXX"라고 표시된 스위치를 작동하는 것 - 을 가했음을 알았다.

심리학자들은 처음에 밀그램의 실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놀라운 연구결과는 대단히 확고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밀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1천명 이상의 피실험자들을 실험하였다. 그의 연구는 다양한 국적과 사회경제적·교육적 배경을 갖고 있는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되풀이되었다. 유사한

7) Christopher R. Browning, "Ordinary Germans or Ordinary Men? A Reply to the Critics," in Michael Berenbaum and Abraham J. Peck, eds., *The Holocaust and History: The Known, the Unknown, the Disputed, and the Reexamine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pp. 184-186. 발렌티노 책 pp. 45-46에서 재인용.

8) Stanley Milgram, *Obedience to Authorit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4).

실험들은 보통 사람들로부터 똑같이 혼란스러운 행동을 이끌어내었다. 밀그램의 실험은 특히 권위에 대한 복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들의 놀라운 위력을 강조하는데 실험의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권위는 보통사람들의 극단적이고 폭력적 행동을 조장할 수 있는 다수의 상황적 압력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Valentino 2004, 44).

이러한 경향은 1971년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 교수를 대표로 하는 심리학자 연구진이 수행했던 또 다른 놀라운 실험에 의해서 강력하게 입증되었다. 짐바르도는 투옥의 심리적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시뮬레이션화된 감옥을 만들었고, 대학생들 가운데 간수와 죄수 역할을 할 개인들을 무작위로 선발하였다. 모든 피실험자들은 '권위주의적 인간성'을 식별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인간성 시험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실험 둘째 날이 되자, 일부 간수들은 죄수들을 야만적이고, 가학적이며, 굴욕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물리적 폭력이 금지됐지만, 간수들은 죄수들을 소화기의 드라이아이스로 구타하였으며, 그들의 옷을 벗겼고, 팔굽혀펴기를 반복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몇몇을 독방에 감금하였고, 재소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고문을 가하였다. 간수들의 잔인성이 계속되자, 짐바르도는 죄수들의 안녕을 우려해 6일 만에 서둘러 실험을 끝내야 했다. 짐바르도는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비교적 용이하게 가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이 연구에서 관찰된 병리현상은 피실험자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간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해석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이 보여준 비정상적인 사회적, 개인적 관계들은 특수한 환경이 초래한 산물이었다. 그곳의 규범과 사태는 다른 곳이라면 병리적이라 말할 수 있는 있었겠지만, 이러한 감옥에서는 적절한 행동일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⁹⁾

밀그램과 짐바르도 실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그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가해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홀로

9) Philip Zimbardo et al., "The Psychology of Imprisonment: Privation, Power and Pathology," in David L. Rosenhan and Perry London, eds., *Theory and Research in Abnorm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5), pp. 270-287. 발렌티노 책 pp. 45-46에서 재인용.

코스트 연구에 대한 아더 밀러(Arthur Miller)의 검토는 “복종의 실험을 일반화할 수 있다는 놀라운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며, 그것들은 학문적 배경과 정향을 달리하는 다수의 논평가들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및 종종 ‘사회악’으로 언급되는 여타의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있는 가설로서 간주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Valentino 2004, 46).

3. 골드하겐의 반대 가설과 바렌티노의 반론

그러나 홀로코스트에 초점을 맞추는 소수의 논평가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철저한 증오심과 학살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문제 삼음 없이 대부분 가해자들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다니엘 골드하겐은 “홀로코스트의 가해자들은 유대인을 절멸시키려는 신념과 문화적 반유대주의의 신조 속에서 학살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가해자들은 확신을 갖고 살인을 자행하였다”고 말한다(Valentino 2004, 46). 더욱이 골드하겐은 “이들 학살을 자행한 가해자들이 일부 소수세력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들은 군인 정신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나치의 초인들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정반대로 “가해자들 행동의 전반적인 특징은 독일 국민 일반의 특징으로 일반화될 수 있고,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골드하겐은 주장한다.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설명은 위에 소개된 선택 효과나 상황적 압력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과 완전한 대조를 이룬다. 골드하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첫째, 다수의 홀로코스트 가해자들은 밀그램 실험의 피실험자들과는 달리 자신들이 따랐던 명령이 정당하다고 확신하였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공공연하게 표명하였다. 둘째, 그들은 유대인 학살과정에서 빈번하게 명령 이상으로 행동을 했으며 직접적인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도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이러한 골드하겐의 주장에 대해 바렌티노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대부분의 일반당원 가해자들은 -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군부와 정계의 고위 지도자들과는 반대로 - 그러한 야만성을 정당화하는 나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피상적인 신념(shallow belief)만을 가졌던 것 같다. 둘째, 이유없는 잔

인성을 보여주었다거나 직접적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도 명령에 순응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선택 효과 및 상황적 압력의 가설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Valentino 2004, 48).

1) 피상적 신념

발렌티노는 개인적 신념이 대부분 홀로코스트 가해자들의 참여를 고취시키는 독립적 요인이 되었다는 주장에 의문을 던지는 세 개의 주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그것들은 그 대신 이들 홀로코스트 가해자들을 자극한 신념이 비교적 피상적인 성격의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첫째, 브라우닝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수의 일반당원 가해자들은 학살을 촉발시켰던 나치의 인종차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들은 기꺼이 임무를 수행하였고 때때로 학살에 열중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의 사상이 아니었다(Valentino 2004, 48). 둘째, 나치의 선전과 세뇌가 이러한 신념의 구체화에 강력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홀로코스트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믿었겠지만, 그들의 신념은 오래 전부터 가졌던 뿌리 깊은 성격의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을 심각한 위협으로 묘사하고 그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촉구하는 선전을 통해 바로 얼마 전에 주입된 관념이었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신념이 폭력을 조장하기 위해 고안된 사상 주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한, 이들 신념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참여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동인으로 간주되기가 어렵다(Valentino 2004, 49). 셋째, 홀로코스트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편견을 품었던 유대인들뿐 아니라 전시에 독일이 점령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방비상태의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 그리고 희생자들 중에는 독일인 정신질환자 및 만성병환자들도 포함되었다. 이들 희생자들이 나치 이데올로기의 공격 목표나 독일인들의 편견의 대상이 되어 본적이 없는 민족 혹은 인종 집단에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증오나 이데올로기적 신념이 가해자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Valentino 2004, 51).

2) 이유없는 야만과 감독받지 않는 순종에 대해

만일 홀로코스트의 가해자들이 나치의 철저한 신봉자도 아니고 광적인 반유

대주의자도 아니라면, 그들이 희생자에게 가했던 수많은 잔인한 행동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직접적인 감독이 부재한 상태에서 혹은 가혹한 처벌의 위협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살인 명령에 순종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동은 앞에서 언급된 가해자의 행위 동기 설명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가해자들이 보여준 이유없는 야만성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적어도 일부 개인들의 경우 희생자들에 대한 지나친 잔혹행위가 철저한 증오심이나 이데올로기적 광신주의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앞에서 설명된 심리학적 연구의 증거는 이유없이 자행하는 야만적 행위와 폭력적 명령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일정 수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이러한 결론은 짐바르도의 교도소 시뮬레이션 실험이 발견한 핵심적 내용이다. 골드하젠은 스탠리 밀그램의 연구결과가 수많은 홀로코스트 가해자들의 이유없는 야만성과 자발적 순종을 설명할 수 없다고 무시하였으며, 짐바르도의 연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이데올로기적 잔학행위는 정상적인 개인들을 이유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학살자로 만드는 야만화의 점진적 과정에서 기인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Roy Baumeister)가 자세히 기록하는 것처럼, 새디스트적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이며 역사적인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새디스트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새디스트들은 처음에 폭력과 유혈사태에 대해 혐오감으로 학살을 꺼려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점차 쾌락을 느끼게 되었다. 폭력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그들은 변하게 되었고, 폭력을 행할수록 그것은 더욱 쉬운 일이 되었다. 즉 폭력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야만으로의 경향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희생자들에 대한 가해자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변형효과(transformative effect)를 초래할 수 있다(Valentino 2004, 55). 밀그램의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들은 희생자들을 증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에게 고통을 가한 결과 그들을 증오히게 되었다. 발렌티노는 이러한 점진적 변형과정이 골드하젠과 브라우닝이 연구했던 부대의 경우에도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다수는 처음에 자신들이 받은 명령에 대해서 혐오감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피와 폭력에 익숙하게

되었고, 일부는 심지어 이를 즐기게 되었다.

상황적 압력이나 피상적 신념의 관점에서 볼 때,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대량 학살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하고 폭력 행위의 가담자들이나 해당 사회의 방관자들은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결론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발렌티노는 이러한 결론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량학살은 야만적 폭력을 자행하는 소규모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학살에 대한 대중의 수동성이나 무관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이유로 용서될 수는 없다. 권위에 대한 순응과 대중적 수동성이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역사는 또한 비도덕적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학살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종종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방관을 거부했던 개인들의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인간은 강력한 상황적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행동에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행동했을 것이라는 논리로 대량학살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도덕적 비난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폭력의 잠재력 혹은 타인을 향한 폭력에 대한 무관심이 거의 모든 인간과 사회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Valentino 2004, 60).

V. 대량학살의 예방과 개입

발렌티노의 이론은 대량학살의 원인에 대한 세 가지 핵심적 결론을 보여준다. 첫째, 소수의 지도자들이 종종 이러한 종류의 폭력을 자극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량학살은 자신의 이익, 사상, 증오, 두려움, 오해 등에 따라 활동하는 비교적 소수의 강력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군사 지도자들에 의해 대체적으로 기획되고 조직된다. 둘째, 소규모 집단들이 대량학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균열, 증오와 차별, 비민주적 정부 형태와 같은 사회 일반의 특성을 거론하는 것은 대량학살의 위험에 처해있는 사회

를 식별하는데 제한적인 효용을 가질 뿐이다. 셋째, 대량학살은 대개 도구적, 전략적 계산에 의해서 추진된다. 가해자들은 대량학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타의 전략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믿게 된 후에야, 좌절감 속에서 대량학살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제노사이드와 대량학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고도로 분절되거나 차별적인 사회, 집단간에 존재하는 비인간적 태도, 또는 비민주적 정부 형태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변수를 폭력의 근본 원인이나 전제조건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들은 이들 특성을 지닌 사회가 끊임없이 대량학살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측이 정확하다면, 오직 사회의 구조, 지배의 형태, 또는 집단간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만이 결국은 대량학살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 물론, 사회 계층의 축소, 집단간의 이해 증진, 민주주의 확산은 소중한 목표들이다. 설령 그것이 대량학살을 예방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력을 추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렌티노는 대량학살의 예방을 위한 이러한 '근본 원인적' 접근이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이러한 노력은 대량학살 발생률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량학살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대량학살의 가해자들은 심지어 비교적 동질적 사회 속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희생자 집단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입증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량학살을 자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럽멜이 인정하는 것처럼 전쟁 기간 중에는 국경 내에 거주하는 비(非)시민집단과 외국의 민간인들을 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균열의 제거나 민주주의의 확산이 반드시 대량학살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Valentino 2004, 237). 이들 전략이 보여주는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이론적으로 많은 약속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폭넓게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사회악에 의해서 특징되는 사회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것들을 치료하는 실질적인 과제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개입의 비용은 엄청나게 비쌀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노력에 의해서 해당 사회의 기본적 구조나 시민적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게다가 이들 노력은 압박한 폭력을 예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이로 인하여 근본 원인적 접근은 종종 개입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제 행위자들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데 대한 준비된 변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 (Valentino 2004, 238). 국가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만이 대량학살을 막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들이 외부적인 힘을 통해 성취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개입을 무의미하고 근시안적인 조치로 쉽게 무시해 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초, 미국의 관리들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자행된 폭력행위를 강제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개입을 주저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논리를 반복적으로 채택하였다. 1992년 로런스 이글버거 (Lawrence Eagleburger) 미 국무장관 대리는 이러한 어투로 사태를 설명하였다: “이 전쟁은 비합리적이다. 인종적 갈등에는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이고 증오이다; 그것은 어떠한 가치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종류의 전쟁은 중단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대량학살에 대한 전략적 시각은 비록 대량학살이 매우 손쉽게 자행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폭력행위를 예방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다른 이론들에 비해 오히려 덜 힘든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대량학살을 예방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개입에 대해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전략적 접근은 대량 학살이 임박해 있다는 경고로 활용할 수도 있는 비교적 구체적인 상황, 조건, 사태들을 확인해준다. 대량학살에 의존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정권들은 단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박탈하는 급진적 사회 변화를 이행하려고 시도하는 정권이거나, 대규모의 집단들을 물리적으로 추방하려는 정권, 또는 대중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게릴라 반란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정권이다 (Valentino 2004, 239-240). 상황적 요인들로 인하여 덜 폭력적인 전략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할 때, 대량학살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우리가 일단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외부의 관찰자들조차도 폭력의 시작에 앞서 진행되는 대량학살의 위험 요인들 다수를 확인할 수 있다. 대량학살은 좀처럼 첫 번째로 채택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자들은 지도자들이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대량학살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

면, 소련 정권은 스탈린이 1929년 농민계급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기 이전에 세금과 물가의 유인 및 저수준의 폭력을 구사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사회화하려는 공개적인 노력을 하며 거의 12년을 소비하였다. 독일에서는 나치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살을 시작할 때까지 7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 시기에 나치는 자신들의 인종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주와 추방을 통해서 독일로부터 유대인들을 청소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과테말라의 군사정권은 1981년 대대적인 대량 학살에 착수하기 전, 지방의 게릴라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3년 이상을 투쟁하였다.

대량학살 예방을 위한 전략적 관점이 두 번째로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국제 행위자들이 대량학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거나 그것이 시작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전략적 관점은 대량학살의 추진력이 일반적으로 사회구조나 정부구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지도부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량학살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은 해당 사회의 근본적인 변형을 모색할 필요가 없음을 암시한다. 오히려 대량학살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은 학살을 자극하고 조직하는데 책임이 있는 소규모 집단과 지도자들의 권력을 제거하거나 무장해제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Valentino 2004, 243). 이러한 종류의 개입은 가해세력의 군사력을 격퇴하고, 지상에서 희생자 집단을 보호하며,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군사작전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발렌티노는 우리가 대량학살의 예방을 위한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는 경우 그것을 전쟁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극복해야 하며 대량학살을 예방하는 행위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전쟁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제적인 제재나 전쟁 범죄에 대한 기소의 위협 어느 것도 보스니아나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가 지원한 폭력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였다. 청년 터키당과 나치 정권 모두 광범위한 경제 봉쇄를 포함해 국제적 제재의 위협을 받았지만, 양자 모두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기보다는 전선전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결의에 찬 적에 맞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항상 비싼 대가를 치르는 법이다. 그것은 개입자들에게 상당한 피해와 희생을 초래하는 실질적인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욕망은 무력 개입을 선택할 경우 지상군의 투입을 매우 꺼리게 만들며 주로 공군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미국은 세르비아가 최종적으로 평화안에 동의한 1995년까지 보스니아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 시점에 이르자 대부분의 학살과 인종 청소는 이미 종료되고 있었다. 보스니아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의 유엔 지상군은 협정이 체결되기 전 민간인들을 보호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눈앞에서 전개되는 대규모 학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며 제노사이드나 기타 대규모 잔혹행위를 예방하는데 책임이 있다는 신념을 빈번히 표명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탈냉전기 정책들은 제노사이드와 대량학살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책임을 보여주는데 실패해왔다. 오히려 1990년대 미국의 개입 기록은 미국이 원칙상으로는 대량학살의 예방을 위한 행동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런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조그마한 희생조차 감당하려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Valentino 2004, 246). 이러한 신념과 행동의 차이는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1992년 미국이 주도하는 소말리아 개입 초기에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는 미국인의 73~81%가 작전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개입을 통해 수만 명 혹은 심지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하였지만, 미군의 임무가 식량제공에서부터 지역 민병대의 무장해제라는 보다 위험한 일로 확대되는 순간, 작전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3년 10월 모가디슈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18명의 미군이 사망하자 지지도는 더욱 추락하였다. 전투가 있던 뒤 수일이 지나자, 미국인의 60%가 “미국은 소말리아에서 한 명의 병사라도 더 죽게 할 수 없다”는 문항에 동의하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말리아에서의 미국의 경험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르완다 학살 당시 - 홀로코스트 이후에 발생한 제노사이드의 가장 명백한 사례이다 - 군사적 개입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제재나 공습과 같은 용정적 정책의 현실적 한계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폭력을 실질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위험이다. 제재와 공습은 가해자들에게 대량학살의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데 성공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들이 이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희생자들을 비난한다면 대량학살의 개입 동기나 이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강화될 수도 있다. 용정적 정책은 잠

제적 희생자들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학살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따라서 발렌티노가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현실적인 처방은 다음과 같다. 지상군의 전투 참여 없이 희생자들을 대량학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은 대량학살의 잠재적 희생자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Valentino 2004, 249). 보다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보다 많은 자원이 수송과 재정착 과정에 투입된다면, 난민들은 보다 적은 희생 속에 장정에 오를 수 있을 것이며 재탈의 고난 역시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난민 대열을 보호하고 국경을 개방하는 정도의 소규모적 개입조치만으로도 더 많은 난민의 탈출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자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량학살의 근본원인이 집단간의 증오, 희생양의 물색, 혹은 학살 자체를 위한 학살의 욕망에 있다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대량학살의 가해자들은 희생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희생자 집단의 도피를 기꺼이 허용하려 한다면,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개입은 폭력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나토의 공습이 세르비아인들의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학살을 막을 수 없었던 반면, 알바니아 국경 건너에 세워진 모범적인 난민 수용소들은 많은 희생자들에게 투쟁보다는 탈출을 격려했고 탈출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마찬가지로 한국, 쿠바, 베트남에서 공산주의 혁명에 뒤이어 발생한 대규모의 탈출은 수많은 인명을 구하였다. 이러한 집단 탈출의 성패는 인근 국가의 정부가 다수의 난민들을 받아들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대량학살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는 빈번히 국제적 무관심이나 심지어 반대에 부딪치곤 하였다. 발렌티노는 난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문호 개방이 터키령 아르메니아, 나치 독일, 르완다의 제노사이드를 포함해 금세기에 자행된 최대의 유형적 대량학살사태의 희생자 숫자를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홀로코스트의 경우에도 서방 국가들이 유대계 이민자들에 대한 장벽을 낮추었다더라면,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다(Valentino 2004, 251).